

**2019년 ○○○ 관련 이슈  
인터넷 여론 분석 보고서**

**2019.12.**



**빅데이터 분석팀**

## <목 차>

I. 분석 개요 .....	1
1. 분석 목적 .....	1
2. 분석 내용 .....	2
1) ○○○와 ○○○ 관련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TF-IDF 분석 .....	2
2) 각 이슈별 뉴스 댓글의 의미 네트워크 분석 .....	2
3) 각 이슈별 뉴스 댓글의 토픽 모델링 .....	2
3. 분석 대상 .....	3
4. 데이터 특성 .....	3
II. 주요 이슈별 빅데이터 분석 .....	4
1. ○○○ .....	4
1) 분석 개요 .....	4
2) TF-IDF(다음) .....	4
3) SNA(다음) .....	6
4) TF-IDF(네이버) .....	7
5) SNA(네이버) .....	8
2. 교권 침해 이슈(7월 24일~12월 17일) .....	9
1) 교권 침해 키워드 개요 .....	9
2) TF-IDF(네이버) .....	9
2) SNA(네이버) .....	11
3) 토픽 모델링(네이버) .....	11
4) 주요 댓글 내용(네이버) .....	13
3. 네거티브 규제 도입 .....	14
1) 키워드 개요 .....	14
2) TF-IDF(다음) .....	14
3) SNA(다음) .....	16
4) 토픽 모델링(다음) .....	16
5) 주요 댓글 내용(다음) .....	18
6) TF-IDF(네이버) .....	19
7) SNA(네이버) .....	20

8) 토픽 모델링(네이버) .....	21
9) 주요 댓글 내용(네이버) .....	23
4.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8월 27일~12월 17일) .....	25
1) 키워드 개요 .....	25
2) TF-IDF(다음) .....	25
3) SNA(다음) .....	26
4) 토픽 모델링(다음) .....	27
5) 주요 댓글 내용(다음) .....	29
6) TF-IDF(네이버) .....	30
7) SNA(네이버) .....	31
8) 토픽 모델링(네이버) .....	32
9) 주요 댓글 내용(네이버) .....	34

## <표 목차>

<표 1> 2009~2019 ‘○○’ 키워드 언론 등장 빈도 및 평균 .....	1
<표 2> 분석을 위해 수집된 댓글 .....	3
<표 3> ○○○ 관련 다음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	5
<표 4> ○○○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	7
<표 5> 교권 침해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	9
<표 6> 교권 침해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토픽별 주요 키워드 .....	12
<표 7> 교권 침해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주요 댓글 .....	13
<표 8> 네거티브 규제 관련 다음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	14
<표 9> 네거티브 규제 관련 다음 포털 뉴스 댓글의 토픽별 주요 키워드 .....	17
<표 10> 네거티브 규제 관련 다음 포털 뉴스 주요 댓글 .....	18
<표 11> 네거티브 규제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	19
<표 12> 네거티브 규제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토픽별 주요 키워드 .....	22
<표 13> 네거티브 규제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주요 댓글 .....	23
<표 14>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관련 다음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	25
<표 1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관련 다음 포털 뉴스 댓글의 토픽별 주요 키워드 .....	28
<표 16> 네거티브 규제 관련 다음 포털 뉴스 주요 댓글 .....	29
<표 17>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	30
<표 18> 네거티브 규제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토픽별 주요 키워드 .....	33
<표 19>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주요 댓글 .....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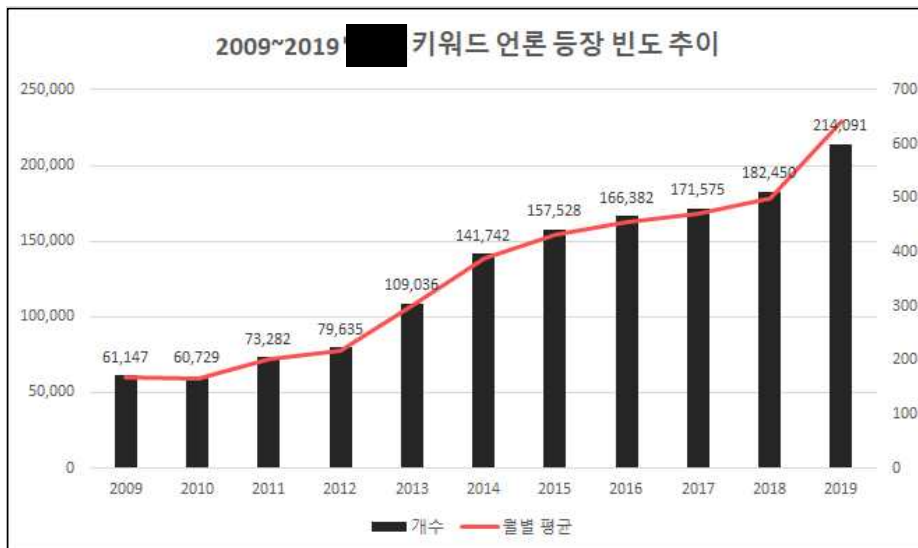
## <그림 목차>

[그림 1] 2009~2019 ‘○○’ 키워드 언론 등장 빈도 추이 .....	1
[그림 2] 2009~2019 ‘○○○’ 키워드 언론 등장 빈도 추이 .....	4
[그림 3] ○○○ 관련 다음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워드클라우드 .....	5
[그림 4] ○○○ 관련 다음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네트워크 지도 .....	6
[그림 5] ○○○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워드클라우드 .....	8
[그림 6] ○○○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네트워크 지도 .....	8
[그림 7] 교권 침해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워드클라우드 .....	10
[그림 8] ○○○ 관련 다음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네트워크 지도 .....	11
[그림 9] 교권 침해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토픽간 거리 지도 .....	12
[그림 10] 네거티브 규제 관련 다음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워드클라우드 .....	15
[그림 11] 네거티브 규제 관련 다음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네트워크 지도 .....	16
[그림 12] 네거티브 규제 관련 다음 포털 뉴스 댓글의 토픽간 거리 지도 .....	17
[그림 13] 네거티브 규제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워드클라우드 .....	20
[그림 14] 네거티브 규제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네트워크 지도 .....	21
[그림 15] 네거티브 규제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토픽 간 거리 지도 .....	22
[그림 16]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관련 다음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워드클라우드 .....	25
[그림 17]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관련 다음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네트워크 지도 .....	27
[그림 18]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관련 다음 포털 뉴스 댓글의 토픽 간 거리 지도 .....	28
[그림 19]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네트워크 지도 .....	31
[그림 20]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네트워크 지도 .....	32
[그림 2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토픽 간 거리 지도 .....	33

# I 분석 개요

## 1. 분석 목적

- ○○○는 ○○, ○○, ○○, ○○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
- 2009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축적된 자사 미디어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0년간 ○○에 관한 언론의 관심은 10년간 3.5배로 꾸준히 높아져 왔음
- 언론은 여론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2018년에서 2019년(12월 제외) 사이 3만 건이나 증가함



[그림 2] 2009~2019 '○○' 키워드 언론 등장 빈도 추이

연도	개수	월별 평균
2009	61,147	168
2010	60,729	166
2011	73,282	201
2012	79,635	218
2013	109,036	299
2014	141,742	388
2015	157,528	432
2016	166,382	455
2017	171,575	470
2018	182,450	500
2019	214,091	641

<표 1> 2009~2019 '○○' 키워드 언론 등장 빈도 및 평균

- 대표적으로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논란이 된 ‘○○○○’ 등 ○ ○○과 ○ ○에 대한 일반 여론의 관심이 점점 높아짐
- 이에 2019년 한 해 ○○○가 언급된 모든 기사에 달린 포털 댓글과 ○○○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슈 보도에 달린 포털 댓글을 분석함으로써 여론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함

## 2. 분석 내용

### 1) ○○○와 ○○○ 관련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TF-IDF 분석

- 인터넷 여론의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는 등장하는 주요 어휘의 빈도별 가중치로써, 핵심적인 여론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음
-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수집된 댓글들(문서들)에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는 분석방법으로써 ‘문서빈도-역문서빈도’로 포함되어 있는 단어의 중요성에 따라 해당 단어와 문서의 연관성을 계산함
- 문서 내에서 단어 빈도가 높을수록, 전체 문서 중 그 단어를 포함한 문서가 적을수록 높으며, 단순히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는 기존의 빈도 중심의 관점을 벗어난 분석방법임

### 2) 각 이슈별 뉴스 댓글의 의미 네트워크 분석

- 2019년에 발생한 각 이슈는 이슈의 성격, 사회적 특성 등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의 여론 반응을 일으킴
- 의미 네트워크 분석(SNA; Semantic Network Analysis)은 태풍과 관련된 어휘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의미를 만들어내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면, 일반적으로 명사로 결합된 네트워크가 중점적으로 나타남
- TF-IDF값으로 산출된 TDM(Term-Document matrix)을 바탕으로 코사인 유사도 값을 계산하여 키워드 간의 연관성을 계산한 TTM(Term-Term matrix)을 구축하고, 키워드 별 근접중심성으로 계산

### 3) 각 이슈별 뉴스 댓글의 토픽 모델링

-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은 어떤 문서가 ‘토픽’이라는 추상적인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이 ‘토픽’ 들을 찾아내는 기술로, 여러 문서들을 대상으로 한 문서에 자주 같이 등장하는 단어들을 통계적으로 추출해 내는 것임

- 따라서 이슈와 관련한 댓글들이 주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적절한 분석방법임

### 3. 분석 대상

- 분석 대상은 ① 2019년에 보도된 ‘○○○’ 언급 보도에 달린 모든 뉴스의 댓글과 ○○ ○○ 혹은 ○○ 중 4개 주요 이슈인 ② 교권침해 방지법, ③ 네거티브 규제 도입, ④ 배우자 출산휴가(유급)과 관련된 뉴스의 댓글임
- 댓글은 다음 및 네이버 뉴스의 결과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 수집된 댓글들은 각각 아래와 같음

<표 2> 분석을 위해 수집된 댓글

	키워드	기간	포털	댓글 수
1	○○○	2019년 전체	다음	65,000
			네이버	100,000
	이슈	기간	포털	댓글 수
2	교권침해(방지)	2019.07.24. ~	다음	-
			네이버	7,959
3	네거티브 규제	2019년 전체	다음	3,710
			네이버	18,722
4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19.08.27. ~	다음	570
			네이버	4,581

### 4. 데이터 특성

- 일반적으로 인터넷 댓글은 여론을 반영하기보다는 이른바 ‘목소리가 큰’ 의견에 대한 반영이라고 볼 수 있음
- 긍정적인 의견들이 거의 개선되지 않는 특성을 보이며, 특히 네이버의 경우 정부에 반감을 가진 감정적 댓글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감안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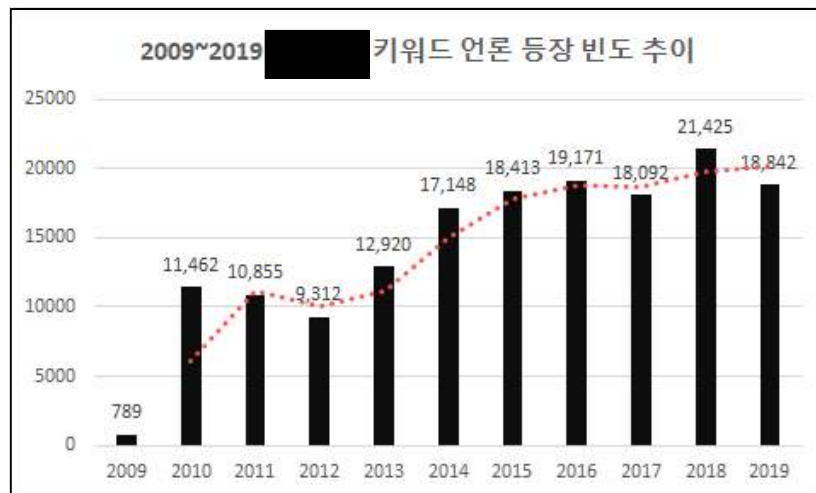


## Ⅱ 주요 이슈별 빅데이터 분석

### 1. ○○○

#### 1) 분석 개요

- 2019년 한 해 심사·해석·정비된 ○○○과 보다 쉬운 정보가 제공된 ○○○ 중 사회에 주요한 영향을 끼쳐 언론이 보도한 뉴스 중 ○○○가 언급된 보도를 모두 분석함
- <그림 1>에 나타났듯 ○○○의 ○○○과 ○○○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을 정비하고 해석하는 ○○○에 관한 관심도 비례하여 올라가고 있음



[그림 4] 2009~2019 '○○○' 키워드 언론 등장 빈도 추이

- 따라서 개별 이슈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 ○○○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가 여론에 어떤 맥락으로 등장하는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음

#### 2) TF-IDF(다음)

- ○○○에 대한 다음 뉴스 댓글 수집 결과 주요 어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음

<표 3> ○○○ 관련 다음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순위	키워드	TF-IDF	순위	키워드	TF-IDF
1	사람	1310.605	26	새끼	350.9602
2	국민	1248.641	27	검사	346.5508
3	자한당	1067.263	28	한국	340.8044
4	나라	941.0994	29	문제	327.229
5	판사	918.5704	30	기레기	319.2296
6	검찰	898.8659	31	공수	311.5274
7	일본	823.781	32	정권	303.9405
8	여상규	808.2873	33	국회	303.665
9	민주당	574.8455	34	세금	294.1559
10	국회의원	568.3333	35	신상	293.4842
11	의원	556.9503	36	법사위원장	290.5844
12	쓰레기	524.4455	37	지지	283.2001
13	생각	511.1335	38	위원장	279.8204
14	조국	492.3487	39	공무원	278.8739
15	판결	463.7665	40	필요	276.7448
16	정부	450.6152	41	출신	271.358
17	수준	441.204	42	정신	269.8385
18	수사	419.2055	43	국가	265.3633
19	금태섭	407.917	44	기사	258.2214
20	소리	405.8333	45	문재인	255.8933
21	소신	371.0413	46	당신	250.6195
22	대통령	369.5449	47	반대	249.551
23	대한민국	367.7141	48	처벌	247.7065
24	소신발언	366.5303	49	적폐	244.1158
25	정치	359.0215	50	검찰개혁	241.5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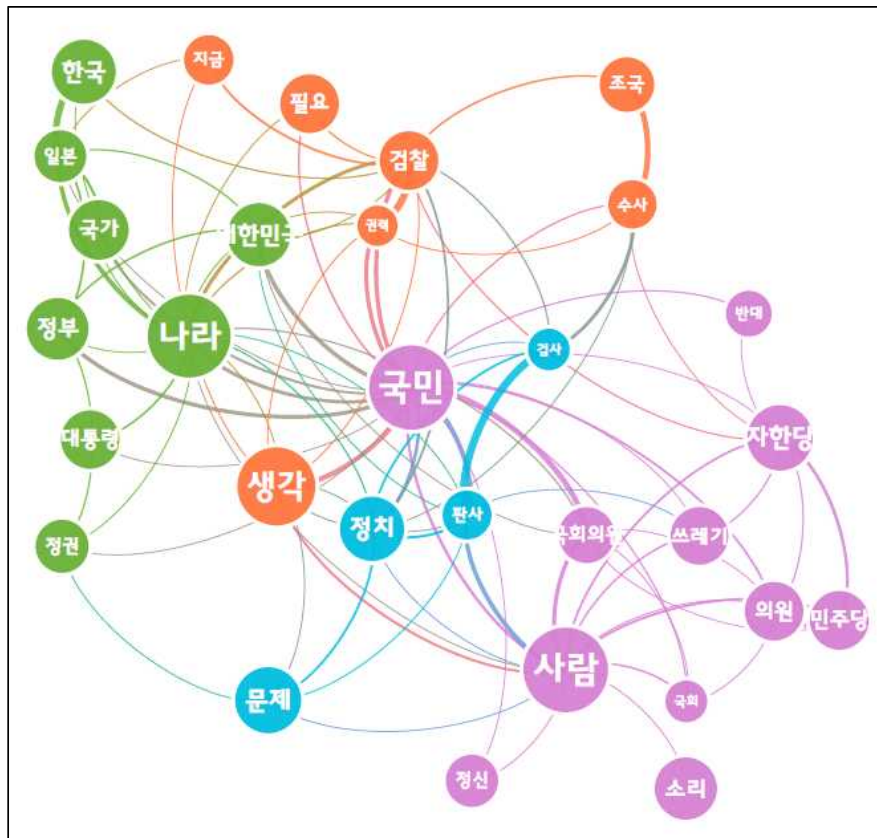


[그림 5] ○○○ 관련 다음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워드클라우드

- 어휘별 TF-IDF 값을 보면 ‘국민’ 과 ‘사람’ 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가 언급되는 기사 특성상 대한민국 국민/사람(인권)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반응을 할 유인이 크기 때문임
- 그 외 2019년에는 국정감사 내용 및 국회 ○○○ 위원장인 ○○○ 의원 관련한 구설과 ○○○ 예산 논란(○○○ 6억 예산 논란에 국회 ○○○ 멈췄다-머니투데이)이 함께 거론된 것으로 보임
- 판사, 자한당, 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같은 맥락에서 등장한 키워드로 판단됨

### 3) SNA(다음)

- ○○○와 관련해 주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체적인 의미를 구성하고 있음
- ‘국민’ 을 중심으로 민주당-자한당 국회의원의 ○○ 이슈와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기소 이슈가 검찰과 연결되며 구체적인 의미를 이루고 있음
- 국회 ○○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가 발생하면 ○○○가 함께 거론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그림 6] ○○○ 관련 다음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네트워크 지도

4) TF-IDF (네이버)

○ ○○○에 대한 네이버 뉴스 댓글 수집 결과 주요 어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음

<표 4> ○○○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순위	키워드	TF-IDF	순위	키워드	TF-IDF
1	나라	2551.551	26	정치	541.157
2	사람	1844.461	27	새끼	525.4411
3	국민	1780.181	28	정신	491.3696
4	일본	1761.099	29	좌파	483.4132
5	정부	1334.577	30	규제	467.877
6	정권	1291.138	31	기사	463.1006
7	조국	1220.125	32	학원	455.0332
8	문재인	1177.488	33	미국	441.4333
9	대통령	1059.164	34	무능	438.2424
10	재앙	1014.657	35	인사	425.3909
11	생각	976.1473	36	자기	419.7308
12	북한	884.818	37	수출	419.2638
13	경제	771.4528	38	촛불	398.5697
14	세금	690.9966	39	이건	380.6585
15	한국	684.0127	40	탄핵	379.976
16	대한민국	678.0061	41	서민	378.9689
17	집값	628.0516	42	분양	378.7916
18	정책	626.9818	43	개돼지	375.5047
19	문제	622.1593	44	필요	371.8742
20	소리	575.1301	45	중국	368.5116
21	빨갱이	567.8957	46	능력	362.0918
22	국가	567.274	47	공부	352.8074
23	민주당	565.2151	48	자한당	346.9976
24	기업	561.1105	49	박근혜	342.3759
25	쓰레기	552.7557	50	댓글	341.2983

- 어휘별 TF-IDF 값을 보면 ‘나라’ 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우선적으로 ○○○가 언급되는 ○○○ 관련 기사 특성상 여론이 사건사고의 충격에 반응하기 때문임
- 또한 현 정권 관련된 키워드인 ‘정권’, ‘대통령’, ‘정부’ 등은 해당 포털 (네이버) 뉴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중의 전반적인 부정적 반응을 암시함
- 많은 법 개정 및 해석 기사 중 여론은 부동산 규제 및 증세 이슈를 중심으로 반응함을 ‘집값’, ‘세금’, ‘경제’, ‘정책’ 등에서 알 수 있음



- 다음 포털과 달리, 네이버 포털에서는 ○○○ 관련 키워드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건이 대통령, 민주당과 연결됨
- 또한 북한, 좌파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여 ○○○ 관련 이슈가 촉발되면 이념 논쟁이 발생할 확률도 높다고 할 수 있음

## 2. 교권 침해 이슈(7월 24일~12월 17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교권 침해 키워드 개요

- 최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름에 따라 2016년 ○○○을 제정하였으며, 올해 7월 24일 ○○○ ○○을 공고함
-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기준 등이 새로 규정됨
- 교육활동 침해 및 교원의 피해 발생 사태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나 대처 방법 등에 대한 여론은 다양하여 의견을 수집·분석할 필요가 있음
- 교권 침해 이슈는 다음 포털에 개진된 의견이 적어 네이버 포털로 한정함

### 2) TF-IDF(네이버)

- 교권 침해 이슈에 대한 네이버 뉴스 댓글 수집 결과 주요 어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음

<표 5> 교권 침해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순위	키워드	TF-IDF	순위	키워드	TF-IDF
1	학생	324.6433	26	폭행	69.2909
2	선생	299.0006	27	생각	69.08777
3	전학	280.5634	28	필요	66.83717
4	부모	250.114	29	사형	64.91935
5	퇴학	231.9087	30	인성	60.13448
6	전교조	230.0813	31	정신	56.4952
7	학교	215.1334	32	가정	56.21218
8	교육	210.7267	33	감옥	55.3815
9	교사	205.2692	34	교도소	52.33342
10	사람	173.822	35	폭력	49.66762
11	나라	157.1008	36	청소년	49.1742

12	인권	152.2393	37	개판	47.86506
13	처벌	141.7865	38	말세	46.95479
14	대구	119.9431	39	범죄자	43.7995
15	쓰레기	102.6992	40	교육감	42.41934
16	문제	101.2122	41	좌파	41.63441
17	세상	101.1411	42	중학생	40.16078
18	교권	99.39752	43	감방	39.17126
19	새끼	96.9245	44	어른	38.12832
20	아이	83.19697	45	범죄	38.12064
21	구속	82.642	46	스승	37.87458
22	소년원	82.62606	47	요즘	37.82712
23	사회	76.9705	48	미래	37.799
24	자식	75.56607	49	소년법	36.95036
25	체벌	74.97235	50	수업	35.92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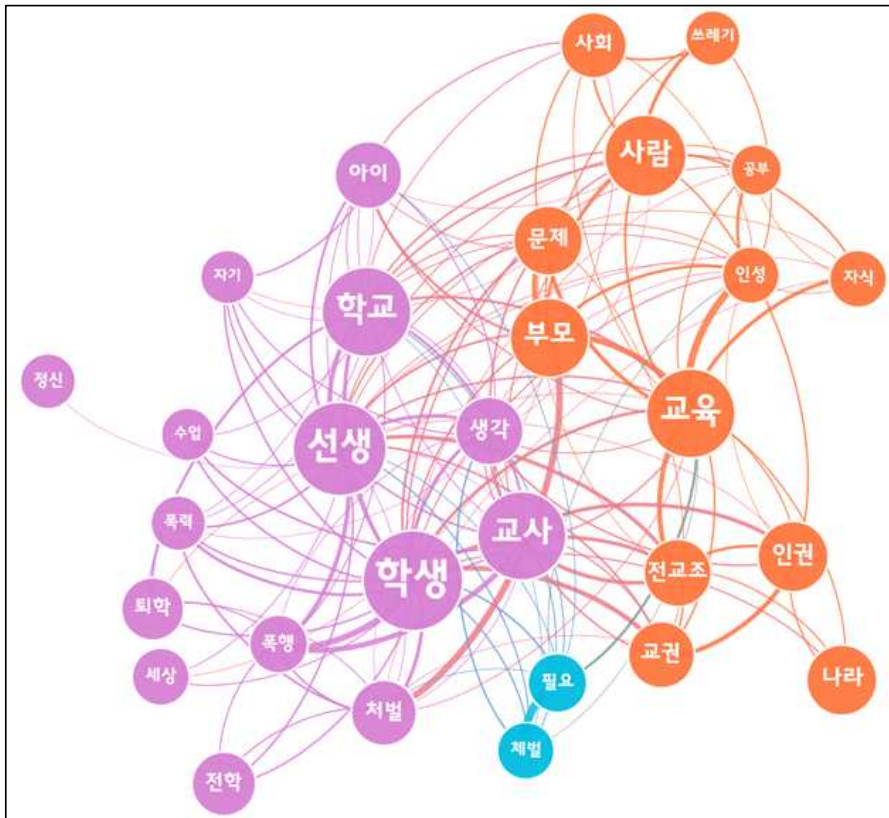


[그림 9] 교권 침해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워드클라우드

- 어휘별 TF-IDF 값을 보면 ‘학생’, ‘선생’, ‘부모’ 와 ‘전학’, ‘퇴학’ 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교육 활동 침해와 교원의 지위 관련 갈등이 교사-학생-학부모 삼자간 갈등으로 이뤄지기 때문임
-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징계(처벌) 관련 키워드로는 전학 및 퇴학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음
- ‘인권’ 이라는 단어는 교사와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권리가 침해될 때 보호받아야 할 근거로써 다수 등장함
- 그 외 소년원, 교도소, 체벌 등의 다소 격양된 반응도 등장하고 있으나 전학 등의 키워드에 비해서는 적은 빈도를 보임

## 2) SNA(네이버)

- 교권 침해와 관련해 주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체적인 의미를 구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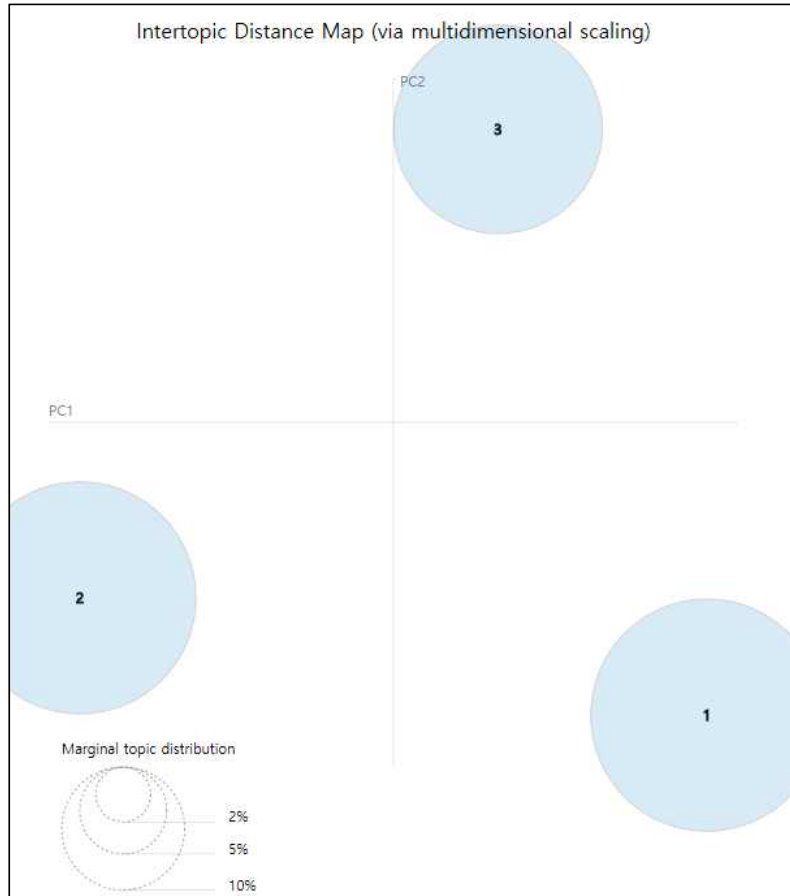
[그림 8] ○○○ 관련 다음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네트워크 지도

- 차별이 다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독립적인 그룹을 구성하고 있을 만큼 짙은 빈도를 보임
- 한편 인성 문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한다는 식으로 키워드 네트워크가 구성됨으로써 가정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드러남
- 주로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 그 자체와 학교의 대처가 언급되었으며, 학교의 대처는 처벌과 전학, 퇴학 등이 언급됨

## 3) 토픽 모델링(네이버)

- 교권 침해 관련 댓글은 크게 3가지 토픽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해당 토픽은 아래와 같이 시각화되어 나타남
- 그 결과 토픽 1은 35.6%, 토픽 2는 35.6%, 토픽 3은 28.8%의 비율을 나타냄





[그림 9] 교권 침해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토픽간 거리 지도

<표 6> 교권 침해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토픽별 주요 키워드

토픽1		토픽2		토픽3	
부모	0.051135	학생	0.104337	교사	0.071871
전학	0.043811	선생	0.070148	교육	0.054196
나라	0.033922	인권	0.030927	학교	0.043218
차별	0.030825	생각	0.024814	전교조	0.039313
퇴학	0.028226	폭행	0.01991	사람	0.032353
여교사	0.014939	교권	0.019851	문제	0.020132
새끼	0.014551	쓰레기	0.015632	대구	0.016892
자식	0.013976	아이	0.013597	인성	0.014011
구속	0.010193	필요	0.013559	사회	0.011551
가정	0.010016	세상	0.01341	빨갱이	0.007759

- 이를 통해서 3개의 주요 토픽이 구성되었고, 그 토픽의 성격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음

- 토픽 1: 부모 가정 자식 (교육) 처벌 전학 퇴학 구속
- 토픽 2: 학생 선생 인권 교권 필요
- 토픽 3: 인성 교육 학교 (및) 사회 문제

- 전체적으로 볼 때, 토픽이 3개로 구분되며, 전교조와 빨갱이 등 특정 정치적단어를 제외하고 보면 여론은 가정교육과 교사 인권 및 교권, 학교의 (○○) 대처를 촉구하는 세 개의 줄기를 구성하고 있음
- 토픽 1에서 ‘여교사’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나 언론에 보도되는 교권 침해의 구체적 사례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성별로 구성됨으로써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4) 주요 댓글 내용(네이버)

- 관련 댓글 중에서 비교적 공감수가 높았던 댓글들과 특이 댓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7> 교권 침해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주요 댓글

	댓글 내용	공감수
공감 상위 5개 댓글	퇴학이 마땅하지 무슨 전학이나? 아, 다른 학교 선생 또 올라타게 선처한거구나??	11064
	퇴학시키고 소년원 보내서 쳐 맞게 해라... 이건 뭐.. 나이 어린게 무소불위의 권력도 아니고 ...	5307
	이래서 체벌이 다시 부활되어야 한다.체벌이 있던 시절에는 교사의 교권이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았다.그리고 반항을 하고 말을 안 듣는 청소년들도 체벌이 있었을 당시에는 무엇이 잘못된 건지를 알도록 체벌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청소년들이 교사한테 함부로 하지 못했었다.물론 체벌이 있던 당시에는 그 체벌이 인권이 무시된다고 해서 말들이 많았지만 나도 체벌이 있던 학창시절을 지나갔던 세대라서 확실히 체벌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한 팩트다.체벌이라는 훈육이 없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체벌이 필요하다	3935
	아니 전학이 왜 별처럼 쓰이냐..전학간 학교 선생이나 학생은 무슨죄??	3495
	퇴학시키고 중학생이라고 봐주지 말고 성인과 동일하게 강력처벌 해봐라.아무튼 소년법은 폐지가 답이다...	2158
법 관련 언급이 있는	촉법소년 나이 10세로 낮춰... 전학 필요없고 퇴학.. 지인생 피곤하면 검정고시라도 보겠지.. 사람은 고쳐쓰는거 아님	419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면 형사처벌에 직장도 짚리고 평생 폭행죄 꼬리	379

댓글	표가 붙는데 저런 되바라진 애들을 제대로 처벌할 법이 없다는게 답답하다	
	부모가 애를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애 인성이 저럴까. 부모얼굴좀 구경하고 싶네. 체벌 부활 같은거 필요없고, 소년법 없애고 저런것들은 잡아다 감방 처 놓으면 된다. 어릴적 부터 싹수가 노란것들은 잘라내야!!	286
	세상이 바뀐만큼 법도 바꿨어야지 교권이 아무리 죽고 선생의 인성 어찌고 해도 교단에 서있는 선생의 권위를 흔드는 일을 만들면 안된다. 그것마저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일반 정상 학생들을 지켜줄수가 없다!!	106
	범죄 연령은 점점낮아지는데 법은 제자리 저런 비행 청소년들이 교화로 고쳐질것 같냐? 삼청교육대 같은곳 신설해서 군사훈련 뺄세계 시키고 옥에 가둬야한다. 교화 그만거 백날해봐야 면죄부밖에 안된다. 강력한 법적 처벌이 답이다.	87

- 댓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처벌을 원하며 가정 교육을 타하는 감정적 분위기를 띄고 있으며, 관련법의 개편을 촉구하는 의견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음

### 3. 네거티브 규제 도입

#### 1) 키워드 개요

- 최근 규제 혁신 요구 증대와 관련하여 각종 규제 개혁 관련 키워드로써 분석

#### 2) TF-IDF(다음)

-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다음 뉴스 댓글 수집 결과 주요 어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8> 네거티브 규제 관련 다음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순위	키워드	TF-IDF	순위	키워드	TF-IDF
1	택시	150.0098	26	기업	28.98419
2	검찰	98.97539	27	이재웅	28.31127
3	혁신	86.34227	28	소리	28.23583
4	불법	84.81963	29	문제	28.22511
5	사람	78.81458	30	규제	26.529
6	나라	75.73558	31	민주당	26.45729
7	기사	62.09602	32	조중동	26.06623

8	영업	57.32115	33	필요	23.53812
9	정부	55.3007	34	기술	22.08628
10	대통령	54.31614	35	제목	21.12945
11	기레기	51.80704	36	개혁	20.60239
12	산업	47.46682	37	시대	19.82969
13	언론	41.06393	38	장관	19.42413
14	이재명	39.78915	39	세상	19.18123
15	경제	39.30807	40	밥그릇	19.15655
16	국민	37.81463	41	한국	19.00376
17	쓰레기	33.77903	42	대한민국	18.7909
18	생각	33.2495	43	수준	18.61498
19	문재인	32.45106	44	서비스	18.36629
20	사업	31.12403	45	회사	17.75472
21	중앙	31.01883	46	정신	17.27588
22	정권	30.88705	47	당신	16.87902
23	정치	30.57869	48	렌트카	16.862
24	타다	30.5575	49	자한당	16.73152
25	면허	29.63088	50	합법	16.72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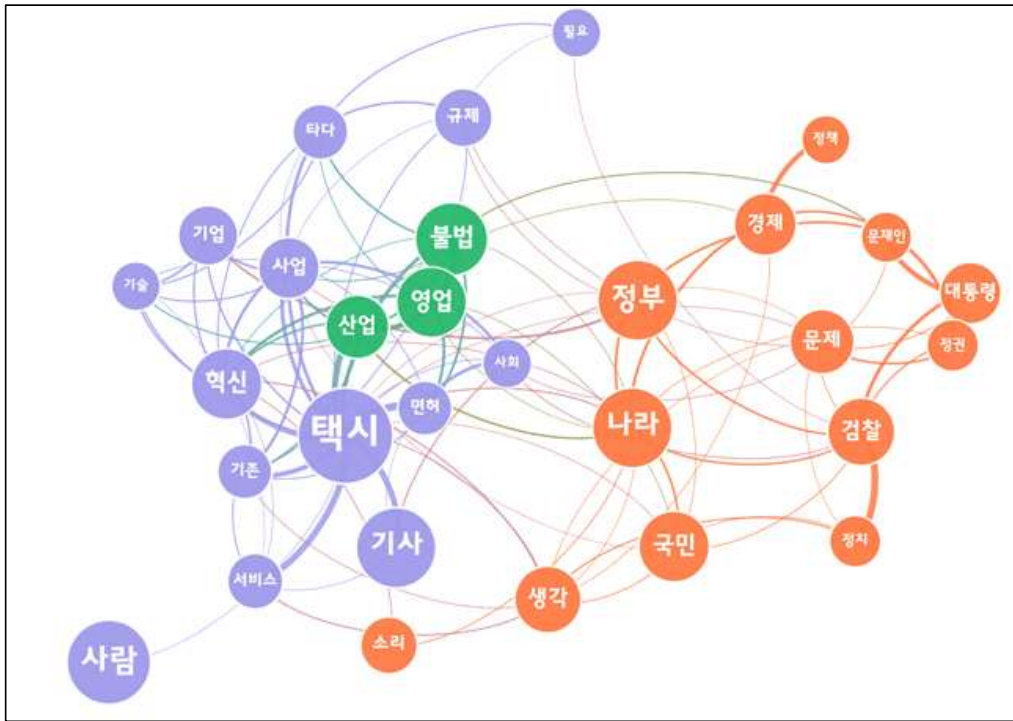


[그림 12] 네거티브 규제 관련 다음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워드클라우드

- 어휘별 TF-IDF 값을 보면 ‘택시’와 ‘검찰’, ‘불법’과 ‘혁신’이 가장 많은데, 2019년 들어 여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이슈가 ‘타다’의 영업 및 성공이었기 때문에 도출된 목록임
- 렌터카 지위로 택시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여 혁신인지 불법인지 인터넷 상에서 논쟁이 격화된 결과로 보임
- 여론의 대립은 양측 의견이 비등한 것으로 판단됨

3) SNA(다음)

- 네거티브 규제 관련 주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체적인 의미를 구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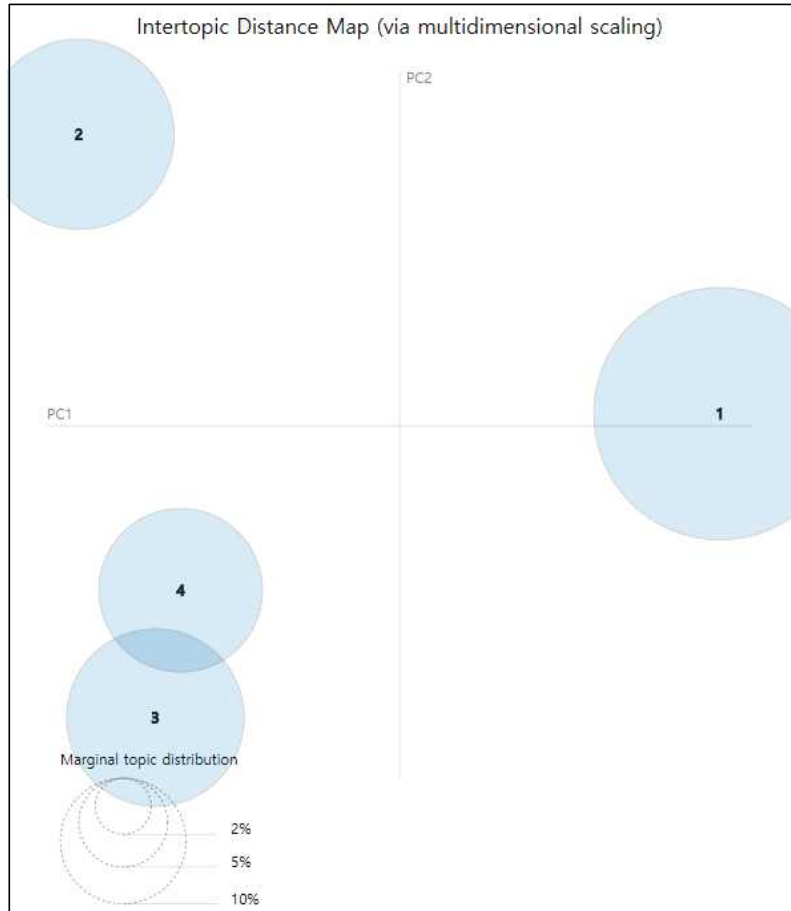


[그림 11] 네거티브 규제 관련 다음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네트워크 지도

- 정부와 검찰, 경제정책 등이 국민의 소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음
- 다른 편으로는 기존 산업인 택시와 타다에 대하여 서비스의 질 등에 대한 차이와 규제에 혁신이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인지, 기술의 발전은 어떤지 등 논의가 지속되었음
- 부정적인 의견은 불법적인 영업 및 산업과 연결되었음

4) 토픽 모델링(다음)

- 네거티브 규제 관련 다음 포털 댓글은 크게 4가지 토픽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해당 토픽은 아래와 같이 시각화되어 나타남
- 그 결과 토픽 1은 40.3%, 토픽 2는 22.9%, 토픽 3은 19.9%, 토픽 4는 16.9%의 비율을 나타냈음



[그림 12] 네거티브 규제 관련 다음 포털 뉴스 댓글의 토픽간 거리 지도

<표 9> 네거티브 규제 관련 다음 포털 뉴스 댓글의 토픽별 주요 키워드

토픽1		토픽2		토픽3		토픽4	
검찰	0.065211	택시	0.091971	사람	0.04069	일본	0.014753
정부	0.032957	혁신	0.035002	문재인	0.016888	자기	0.012571
경제	0.028592	기사	0.025339	소리	0.016865	현실	0.012456
정치	0.022883	불법	0.023054	규제	0.016846	건데	0.011089
기업	0.02176	나라	0.022091	박영선	0.016601	종양	0.010446
장관	0.020994	영업	0.021764	필요	0.014869	제도	0.009194
정권	0.016212	산업	0.019609	개인택시	0.010901	미래	0.008019
문제	0.015468	면허	0.015698	허가	0.009588	대표	0.007463
개혁	0.011836	사업	0.014816	서민	0.009494	장사	0.007337
국민	0.011826	생각	0.013354	기득	0.00875	중요	0.007332

○ 이를 통해서 4개의 주요 토픽이 구성되었고, 그 토픽의 성격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음

- 토픽 1: 검찰 정부 정권 기업 문제 경제 개혁

- 토픽 2: 택시 기사 면허 불법 영업 혁신 사업 생각
  - 토픽 3: 개인택시 허가 기득(권) 규제 필요
  - 토픽 4: 현실 장사 제도 미래 중요
- ‘네거티브 규제’ 라는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택시와 타다로 상징되는 갈등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내용만으로 4개 토픽이 구분되었음
- 경제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는 여론이 공감을 이뤘음

5) 주요 댓글 내용(다음)

- 관련 댓글 중에서 비교적 공감수가 높았던 댓글들과 특이 댓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0> 네거티브 규제 관련 다음 포털 뉴스 주요 댓글

	댓글 내용	공감수
공감 상위 5개 댓글	일단 자가용번호판으로 영업 하는건 불법이 맞는거 같다.	566
	인도 확보도 제대로 안된 나라에서 참 잘도 되겠다	432
	밤에 택시 잡기가 힘들어서 돈을 두~세 배 더 내고 비싼 차를 이용하는 건데 — 운수업 법만 들먹일게 아니라 — 고지식하고 무식한 놈이 잣대를 들이대듯이 일을 처리할 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택시 업체들은 주구장창 매 번 서비스 혁신, 품질 향상을 앵무새처럼 떠들었지만 나아진게 하나 도 없다. 타다를 존속시켜야 한다는데 한 표 던진다.	420
	요즘 검찰이 왜 이러지?? 과거에도 개검이었지만... 계엄령 문건을 알고 도 덮어두질 않나...시민을 위한 타다도 불법이라고 하질 않나.. 나베 약플도 대검에서 조사하질 않나.....검찰개혁 스스로 한답시고 공수처설치를 막질 않나... 이거 썩은내가 진동하는데~~~~	376
	그냥 렌터카영업이지 뭐 대단한 4차산업 관련 업은 아닌 것 같은데,,, 법인명의 고가 렌터카 싸게 사서 ,,비싼요금으로 수익 만들고,,, 기사는 직접채용 안하니 4대보험도 안 나갈꺼고,,, 택시 면허비도 안내고,,, 그냥 대자본가가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꼼수로 영업하는 것일 뿐,,, 별 시답잖은 것들이 4차산업으로 포장하고 ♪~♪♪♪ 이렇게 4차 산업이면 필요없다	301
법과 규제 관련	붉은 깃발법 때문에 영국은 최초로 자동차를 만들고 상용화도 했지만 자동차산업에서 독일 등 다른 나라에 뒤쳐진 된 거죠. 우리도 초고속인 프라를 깔아 놓고 기존의 택시들 때문에 새로운 산업들이 죽어가는 상	292

댓글	항임.	
	불법은 불법이죠.. 운수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251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135
	이런 기사에 자극적인 제목만 뽑지말고 정부가 무슨 법률적 근거로 규제하고 그 규제의 취지가 뭔지 얘기해야죠. 환전을 포함한 외국환거래, 은행 업무는 자금세탁방지과 금융기관 운영 건전성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취재하고 공부한 다음 기사 송고하기 바랍니다.	69
	택시회사와 제휴 하던가.... 아니면 인수를 하던가 편법 아닌가? 돈은 안들이고 택시영업하면서 ai 첨단기업인척	49

- 댓글이 전반적으로 기존 택시 서비스가 기득권으로서 규제가 필요한지(혁신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신사업에 규제가 필요한지 비등한 의견 대립으로 갈음되었음

6) TF-IDF(네이버)

-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네이버 뉴스 댓글 수집 결과 주요 어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11> 네거티브 규제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순위	키워드	TF-IDF	순위	키워드	TF-IDF
1	택시	851.327	26	소리	126.5655
2	혁신	446.0779	27	정치	116.3531
3	나라	426.5314	28	이재웅	109.6781
4	불법	400.6723	29	공무원	109.0415
5	정부	341.2421	30	대한민국	108.6624
6	검찰	322.9787	31	정책	105.6585
7	대통령	307.1985	32	이용	105.1584
8	기사	303.0449	33	우버	104.5856
9	사람	293.8368	34	아무것	101.9876
10	국민	236.4667	35	회사	101.4155
11	산업	223.3841	36	무능	99.83237
12	재앙	209.1254	37	공유경제	99.62936
13	영업	204.6294	38	한국	98.05743
14	문재인	204.0757	39	장관	97.04832
15	규제	200.5805	40	기소	93.23851
16	생각	199.5109	41	국가	91.77887
17	기업	197.9058	42	기술	91.07785
18	사업	191.4427	43	합법	86.45494
19	타다	176.9542	44	대가리	86.12449
20	경제	173.6671	45	렌트카	85.78711



21	정권	160.0531	46	당신	85.71552
22	문제	155.413	47	필요	84.19404
23	인공지능	152.7506	48	쓰레기	83.49298
24	면허	152.1075	49	공유	81.20799
25	서비스	141.7157	50	발전	79.428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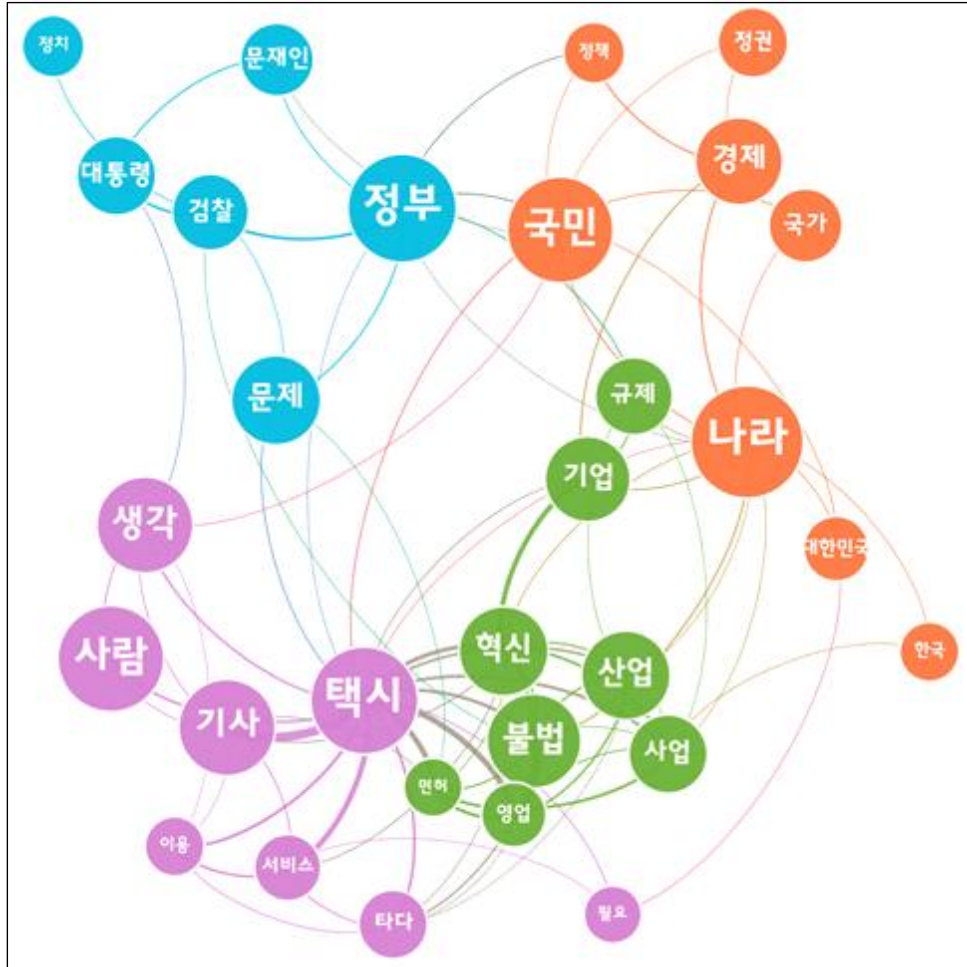


[그림 15] 네거티브 규제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워드클라우드

- 어휘별 TF-IDF 값을 보면 다음 포털과 유사하게 ‘택시’와 ‘검찰’, ‘불법’과 ‘혁신’이 가장 많은데, 차이점은 ‘택시’ 키워드가 압도적으로 많이 언급되었고, ‘대통령’과 ‘정부’, ‘규제’가 많이 언급되었다는 점임
- 정부 규제의 성격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임

#### 7) SNA(네이버)

- 네거티브 규제 관련 주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체적인 의미를 구성하고 있음
- 정부와 검찰의 입장은 ‘정치’ ‘문제’와 연결되어 논의되었음
- 국가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며, 불법적인 영업 및 산업, 사업은 혁신과 규제 키워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규제의 타당성 관련하여 다음 포털보다 직접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보임



[그림 14] 네거티브 규제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네트워크 지도

#### 8) 토픽 모델링(네이버)

- 네거티브 규제 관련 네이버 포털 댓글은 크게 4가지 토픽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해당 토픽은 아래와 같이 시각화되어 나타남
- 그 결과 토픽 1은 42%, 토픽 2는 20.9%, 토픽 3은 20.6%, 토픽 4는 16.6%의 비율을 나타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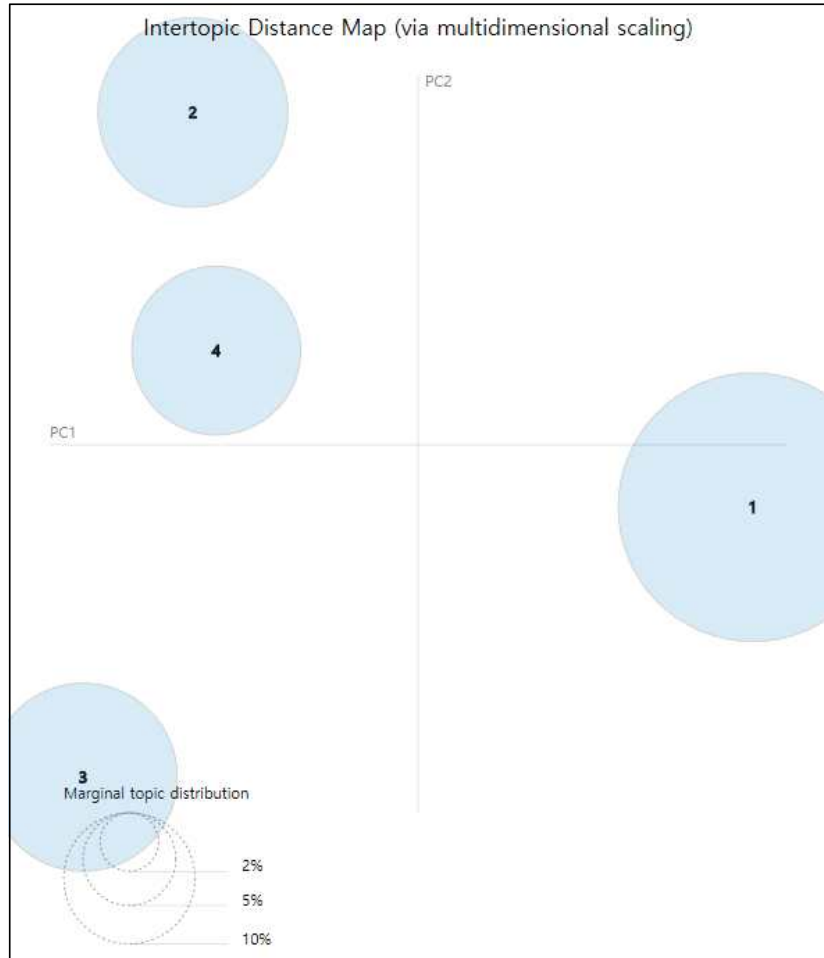


그림 15] 네거티브 규제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토픽 간 거리 지도

<표 12> 네거티브 규제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토픽별 주요 키워드

토픽1		토픽2		토픽3		토픽4	
검찰	0.036179	나라	0.085816	국민	0.044492	택시	0.052976
규제	0.033013	기업	0.025283	대통령	0.041631	정부	0.052592
언론	0.02262	장관	0.024703	정권	0.032493	사람	0.033103
한국	0.015181	대한민국	0.016019	문재인	0.030328	기사	0.018481
당신	0.0149	사업	0.014402	경제	0.026108	불법	0.01808
공무원	0.012619	박영선	0.013484	재앙	0.016759	생각	0.016886
자리	0.012425	조국	0.010527	정치	0.014138	혁신	0.015874
기소	0.009384	박근혜	0.010118	무능	0.013928	산업	0.014234
국회의원	0.009103	댓글	0.009329	정책	0.013796	소리	0.014081
자기	0.008695	발전	0.008272	국가	0.012906	문제	0.013872

○ 이를 통해서 4개의 주요 토픽이 구성되었고, 그 토픽의 성격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음

- 토픽 1: 검찰 기소 국회의원 공무원 당신
- 토픽 2: 박영선 장관 대한민국 사업 기업 발전 조국 박근혜
- 토픽 3: 문재인 정권 경제 정책 무능 국가 재앙
- 토픽 4: 택시 문제 혁신 산업 불법 기사

- 다음 포털 여론 구성과 차이는 인물 이름의 등장 빈도 및 중요도임
- 타다 등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 등 관련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대통령, 기타 정치적 이슈의 중심 인물에 대한 평가가 많았음
- 한편 택시 같은 기존 기업과 새로 등장한 산업의 대립에 대한 논의 또한 하나의 축을 이뤘음

9) 주요 댓글 내용(네이버)

- 관련 댓글 중에서 비교적 공감수가 높았던 댓글들과 특이 댓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3> 네거티브 규제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주요 댓글

	댓글 내용	공감수
공감 상위 5개 댓글	다른 나라는 우버니..그랩이니 다하는데..개택시 표받으려고 ㅈ 1랄이네	3146
	솔직히 이거는 정부문제가 크다 4차산업육성하겠다는 정부가 공유경제 비즈니스모델을 죽이는 코미디를 하나	2383
	구구절절이 맞는 소리. 무능력자들이 나라를 운영하여 반만년 역사를 망치고 있다. 이걸 정부도 아니다. 쓰레기 집단.	1724
	민주당 하면 진보,개혁,쇄신,정의의 아이콘 아니었다. 애네 정권잡더니 정의로운척하는거일뿐이었고, 개혁이 아닌 장악을 하는거였고, 진보가 아닌 퇴보의 길을 걷는것 뿐이었고, 쇄신이 아닌 자기 몸 사리고 남한테 책임넘기기 급급하고. 오늘도 일가족 자살 기사 몇던데 올해만 해도 몇번인지 모르겠다.	1674
	소비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고품질의 서비스로 힘써주신 이재웅 사장님의 무사방면을 기원합니다. 자유시장경제는 경쟁을 거부하는 철밥통들 먹여 살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더 좋은 걸 제공하고 그러면서도 수익을 낼지를 끊임 없이 연구하는 벤처사업가들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타다 택시 탄압은 정말 너무나 실망스러운 사회주의적 결정이군요... 택시 기사들이 언제 한 번 소비자들 지갑 걱정이나 했습니까? 택시 업계가 타다처럼 뭔가 변화를 시도하긴 했나요? 쫓쫓...	1579

법과 규제 관련 댓글	아니 입은 뺏겨져도 말은 바로 하겠다고 타다가 혁신 기업이나? 한국에서 고객에 대한 택시 서비스의 문제점과 법률사이를 파고 든 틈새기업이지. 스마트 폰에 앱하나 깔고 자가용 영업하면 혁신기업이니? 정말 웃기는 소리하고 있다 □ 요새 미국에서 공유기업의 한계에 대해 계속 비판이 나오는거 몰라?	742
	택시랑 유사한 사업모델이지만 우버, 타다 등 신규 사업자들이 있어 소비자가 편리하다면 법이 문제면 법을 개정을 해야지 기존 사업자인 택시 산업을 보호하고자 새로운 비즈니스를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선택은 소비자가 해야지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진입장벽을 높게 한다면 피해를 입는건 소비자입니다. 아무리 규제를 한들 시대가 바뀌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있는 추세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712
	산업변화 속도 빠른것 모르고 그자리에 앉아있냐?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규제 풀라고 하는거야 π. 그나저나 최순실 전남친 고영태는 잘 있냐? 왜 그놈은 감방 안감??? 나쁜짓에 비호 많이 받았는데???	612
	이건 시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냐. 한국에선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와 정부의 쓰레기같은 정책으로 누덕누덕된 법안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이 태어나기 어려운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는게 문제다. 법이라는건 원래 만들어놓고 지들 유리한대로 합법 불법 따져가며 기업들 조지는데 쓰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사업 만들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거다. 렌트카를 빌려서 영업을 하던, 기사를 쓰던 그게 궁극적으로 무슨 죄가 되는지부터 다시 따져봐야한다.	273
	법을 재정비 하여 쏘카든 우버든 그랩등 시장 자유개방해라 이 공산당같은 한국아...전 세계에서 북한.중국만큼이나 규제와 통제가 심한 나라 없다...무슨인증해라 무슨인증해라 지랄 떨며 해킹에 절대 무방비인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232

- 공감 상위 댓글이 전반적으로 정치적 색채가 짙음
- 법과 규제 관련된 댓글은 다음 포털과 마찬가지로 기존 택시 서비스가 기득권으로서 규제가 필요한지(혁신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신사업에 규제가 필요한지 의견 대립을 하고 있으나, 택시에 부정적인 의견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임

#### 4.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8월 27일~12월 1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9.08.27. 일부개정(안)

##### 1) 키워드 개요

- 저출생과 여성 인력의 경력단절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법률로써 사회후생을 늘려 노동력 손실을 방지하고자 배우자의 유급휴가를 열흘로 확대하였음

##### 2) TF-IDF(다음)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에 대한 다음 뉴스 댓글 수집 결과 주요 어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음

<표 14>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관련 다음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순위	키워드	TF-IDF	순위	키워드	TF-IDF
1	공무원	25.93705	26	사회	5.700797
2	경단	19.62673	27	혜택	5.626895
3	출산	16.75645	28	시간	5.485378
4	사람	16.4189	29	직장	5.30097
5	여자	15.53271	30	의무	5.287776
6	아이	13.5254	31	기사	5.209204
7	나라	13.2163	32	현실	5.181529
8	결혼	13.02381	33	국민	4.927328
9	휴가	12.73749	34	근무	4.896601
10	정책	11.20438	35	남편	4.847796
11	회사	10.35282	36	엄마	4.845125
12	육아휴직	10.31375	37	고용	4.750554
13	기업	9.79706	38	경력단절	4.683457
14	남자	9.455487	39	단축	4.642687
15	실업급여	9.145883	40	여성	4.57944
16	강제	8.141601	41	자영업	4.509081
17	육아	7.770194	42	어린이집	4.387116
18	눈치	6.899347	43	사용	4.344221
19	생각	6.857917	44	세상	4.289958
20	임신	6.703944	45	세금	4.280288
21	중소기업	6.69163	46	퇴사	4.210402
22	정부	6.451725	47	월급	4.075766
23	필요	6.265378	48	개월	4.060726
24	아기	6.154306	49	제도	4.015739
25	가능	6.004233	50	해당	3.997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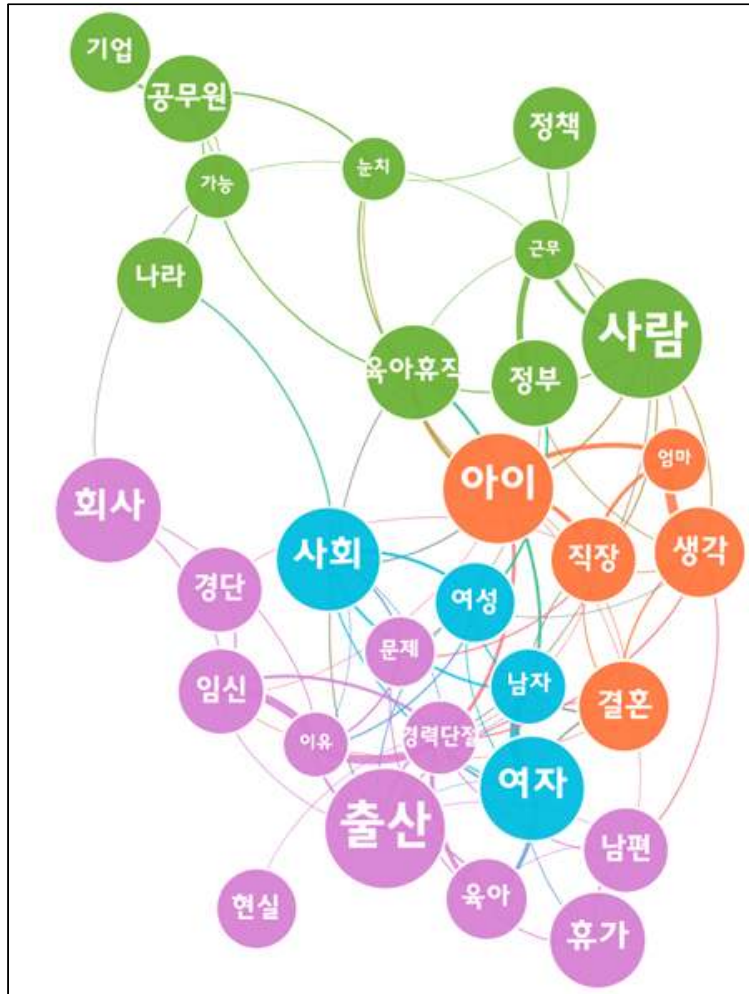


[그림 16]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관련 다음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워드클라우드

- 어휘별 TF-IDF 값을 보면 ‘공무원’, ‘경단’, ‘출산’, ‘여자’, ‘결혼’이 가장 많으며, 이해당사자와 ○○의 혜택 관련된 키워드로 보임
- 다른 주제와 달리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게 도출된 단어들도 직관적인 관련성이 높음

### 3) SNA(다음)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관련 주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체적인 의미를 구성하고 있음
- 출산과 육아 관련해 법이 주는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며, 법적 혜택은 모두 보장되는 공무원이 많이 언급되었음
-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토론이 많았음
- 결혼을 한 후 직장을 다니면 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는 개인의 감성적인 고백과 공감도 유의미하게 등장함



[그림 17]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관련 다음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네트워크 지도

4) 토픽 모델링(다음)

-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관련 다음 포털 댓글은 크게 4가지 토픽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해당 토픽은 아래와 같이 시각화되어 나타남
- 그 결과 토픽 1은 31.5%, 토픽 2는 27.4%, 토픽 3은 23.8%, 토픽 4는 17.4%의 비율을 나타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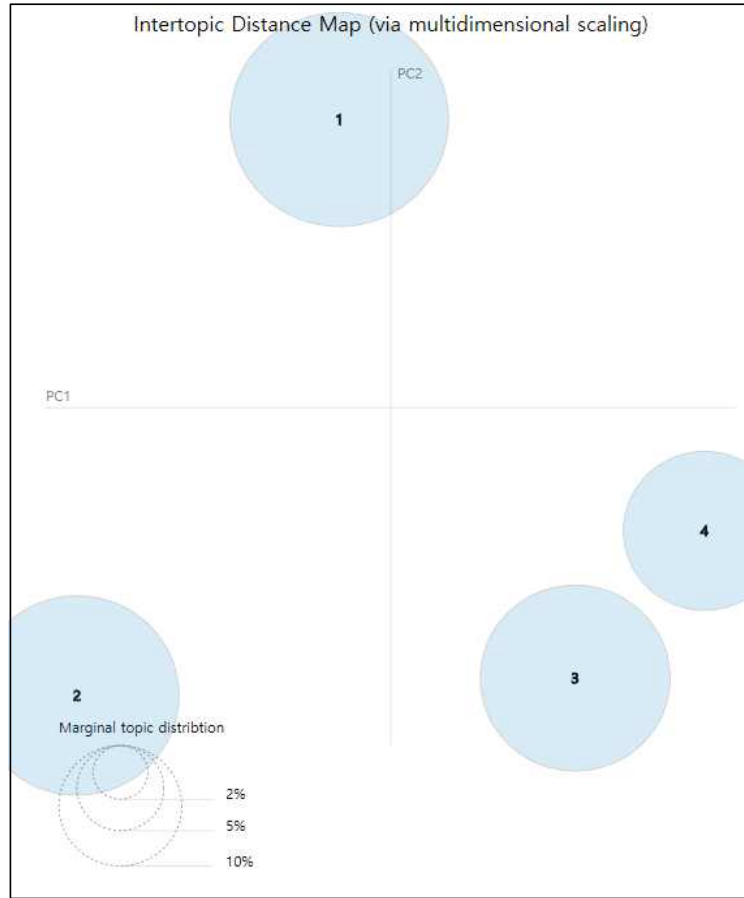


그림 18]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관련 다음 포털 뉴스 댓글의 토픽 간 거리 지도

<표 1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관련 다음 포털 뉴스 댓글의 토픽별 주요 키워드

토픽1		토픽2		토픽3		토픽4	
출산	0.03631	경단	0.022962	강제	0.023763	공무원	0.071897
휴가	0.03537	기사	0.021808	제도	0.015213	사람	0.0421
정책	0.03524	여자	0.021004	아이	0.014148	실업급여	0.037997
나라	0.025767	아이	0.02064	의미	0.014144	육아휴직	0.026728
기업	0.025409	남자	0.018335	생각	0.012647	필요	0.017638
아기	0.018743	개월	0.014351	세금	0.011602	여자	0.01568
회사	0.01373	사람	0.013679	근로	0.009917	의무	0.0125
눈치	0.013196	문제	0.011595	정부	0.009852	인상	0.012493
국민	0.012761	택시	0.011375	경단	0.009689	기혼자	0.010987
중소기업	0.012678	자영업	0.011155	나이	0.009381	세상	0.01088

○ 이를 통해서 4개의 주요 토픽이 구성되었고, 그 토픽의 성격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음

- 토픽 1: 출산 휴가 정책 기업 회사 중소기업 눈치
  - 토픽 2: 경단 여자 아이 개월 남자 문제
  - 토픽 3: 아이 나이 의미 생각 경단 정부 제도 강제
  - 토픽 4: 공무원(처럼) 기혼자 육아휴직 의무 필요
- 정부에서 출산휴가 정책을 준비해도 기업/중소기업 눈치가 보인다는 의미가 반복해 구성되었음
-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은 자녀의 나이와 남자의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경향이 많이 서술되었음
- 육아휴직 제도를 강제해야 한다는 제안이 많았음

5) 주요 댓글 내용(다음)

- 관련 댓글 중에서 비교적 공감수가 높았던 댓글들과 특이 댓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6> 네거티브 규제 관련 다음 포털 뉴스 주요 댓글

	댓글 내용	공감수
공감 상위 5개 댓글	그러니 젊은사람들이 아이를 안낳지요.. 여자들도 썩빠지게 공부했는데	1172
	강 완전 모순덩어리 사회에서 여자만 엄마만 피보는 구조임. 회사가면 배나온 남자들 모여서 이나라 여자들은 애를 안낳네 모성애가 없네 나라걱정 타령들 하고 앓았음. 그러면서 지네팀 여직원이 결혼하고 임신하면 또 나가네 어찌네 뒷담화 겁나 쳐 함.그러면서 즈그 딸 애낳으면 이빠죽고 지마누라는 맛별이하길 바라는 개같은 세상임. 나라에서 아무리 썩 쇼를 해도 노땅들, 남자들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여자들 절대 결혼 임신 안함.	1130
	내 아이 내 손으로 키우고 싶어 퇴사한거 맞아요. 하지만 회사도 임신했다고 하니 실업급여 받게 해준다면서 퇴사를 권유했고 애들 좀 크고 나서 예전 일터로 돌아간다 한들 경단녀는 안뺏아 주겠쥌..	507
	출산휴가는 찬성 실업급여는 반대 실업급여 때문에 놀고먹고 여행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듯 하다.	403
	3명중한명 경단녀 맞나?? 내가볼땐 3명중2명인데...	305
법과 규제 관련 댓글	유사산 휴가가 여태 없었고 생긴게 3일이라는게 놀랍다... 유사산도 출산만큼이나 산모 몸에는 데미지가 크고, 정신에는 상상도 못할 고통인데 남편이 옆에서 돌봐줄 시간이 겨우 3일이라니	272

우리나라가 북유럽은 아니지만 정책방향은 맞다고 본다 육아휴직을 의무화 강제화 해야 남자들도 육아휴직 하고 아이낳는 세상이 되지 곤대 문화 견어낼 수 있게 더 더 의무화하자	133
남성에게도 똑같이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를 줘라 그러면 기업에서는 더는 여자를 고용하면 출산육아휴가를 줘야하니 고용해선 안된다는 의식은 사라질 것이다 둘다 모두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를 줘야 하니까	123
임신이 되면 육아휴직 후 복직을 의무화해야 한다. 본인이 희망하면 퇴직하고.. 이래서는 정말 인구 대책없이 감소한다.	42
제도가 생기는 건 좋으나. 빠지는 사람 대신 그 업무를 떠맡아야하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없애주거나.합당한 혜택을 주거나. 먼저 대책마련을 해줘야지. 대책없이 휴가줘봤자 눈치보여 쓰지못하고. 쓰는 사람 잘못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업무부담 늘어나면서 아무 혜택조차 없는데(야간수당 7천원주면서 혜택이라 하지 맙시다) 불평하게 되는 동료들도 인정없다고 욕먹고. 공무원도 병가도 눈치보여 못쓰는 사람 많답니다	8

- 댓글은 전반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의 현실에 관한 토로와 제도 정착을 위해 성별 관련 없이 출산 및 육아휴직 의무화를 주장함

6) TF-IDF(네이버)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에 대한 네이버 뉴스 댓글 수집 결과 주요 어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음

<표 17>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순위	키워드	TF-IDF	순위	키워드	TF-IDF
1	여자	150.1812	26	한국	39.48041
2	남자	136.1138	27	군대	38.67547
3	공무원	129.1234	28	눈치	38.5565
4	결혼	122.2403	29	중소기업	36.86697
5	육아	119.6933	30	현실	36.69643
6	출산	117.1312	31	페미	36.26288
7	사람	103.7859	32	소리	35.20271
8	나라	98.2127	33	댓글	34.25588
9	회사	85.63724	34	정부	33.43722
10	경단	80.61597	35	능력	32.86134
11	휴가	75.71608	36	엄마	32.64726
12	경력단절	70.40975	37	혜택	31.81615
13	기업	66.52775	38	남녀	30.66881

14	여성	63.25589	39	시간	30.11598
15	남편	63.07616	40	남성	29.17415
16	기사	62.4572	41	지원	28.80099
17	아이	59.46173	42	국가	28.79163
18	생각	59.27318	43	어린이집	28.16142
19	정책	58.14522	44	제도	27.89141
20	육아휴직	56.32962	45	자기	27.68483
21	문제	51.90743	46	필요	27.45629
22	직장	51.42013	47	일자리	26.54153
23	세금	47.70458	48	영화	25.8787
24	세상	43.4308	49	임신	25.84767
25	사회	41.34425	50	가능	25.16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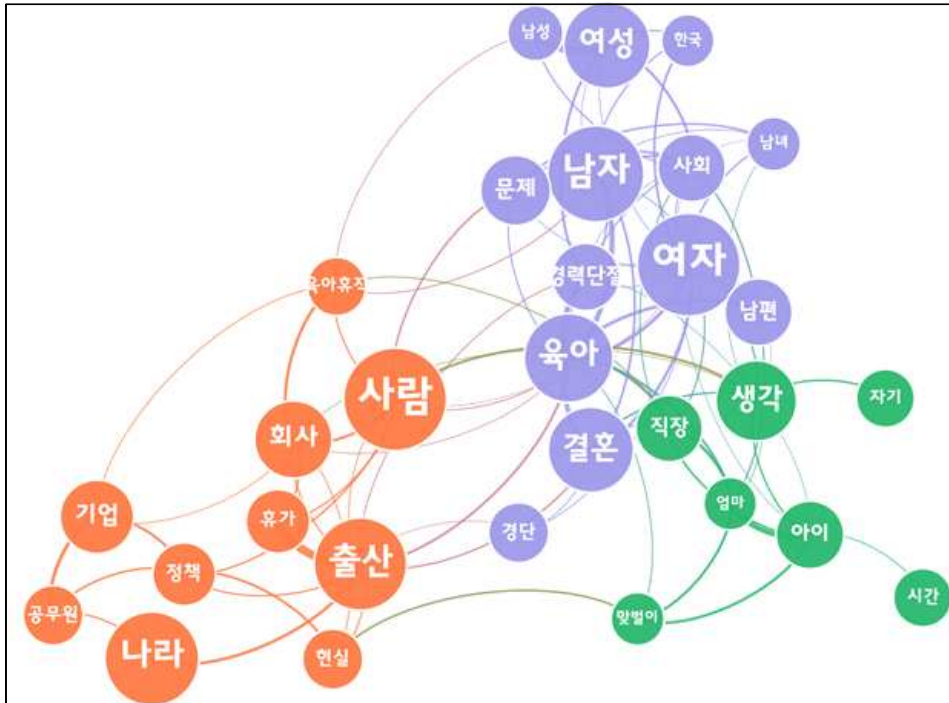


[그림 19]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네트워크 지도

- 어휘별 TF-IDF 값을 보면 다음 포털과 다소 차이를 보임
- 여성과 남성 키워드가 가장 많은 빈도와 유의미한 맥락을 보이며, 사상, 페미, 군대, 능력, 세금 등 갈등 발생 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눈에 띈
- 그 외 결혼 및 출산 육아 관련하여 경력단절과 중소기업, 어린이집 등 구체적인 키워드가 논의되고 있음

7) SNA(네이버)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관련 주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체적인 의미를 구성하고 있음
- 남녀, 남자, 여자, 남편, 문제 등 남녀 갈등이 도드라짐
- 현실적으로 기업/회사에서는 출산과 육아휴직이 힘들다는 토론, 맞벌이 관련된 논의도 이뤄짐



[그림 20]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주요 어휘 네트워크 지도

#### 8) 토픽 모델링(네이버)

- 네거티브 규제 관련 네이버 포털 댓글은 크게 4가지 토픽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해당 토픽은 아래와 같이 시각화되어 나타남
- 그 결과 토픽 1은 46.9%, 토픽 2는 21.9%, 토픽 3은 18.7%, 토픽 4는 12.5%의 비율을 나타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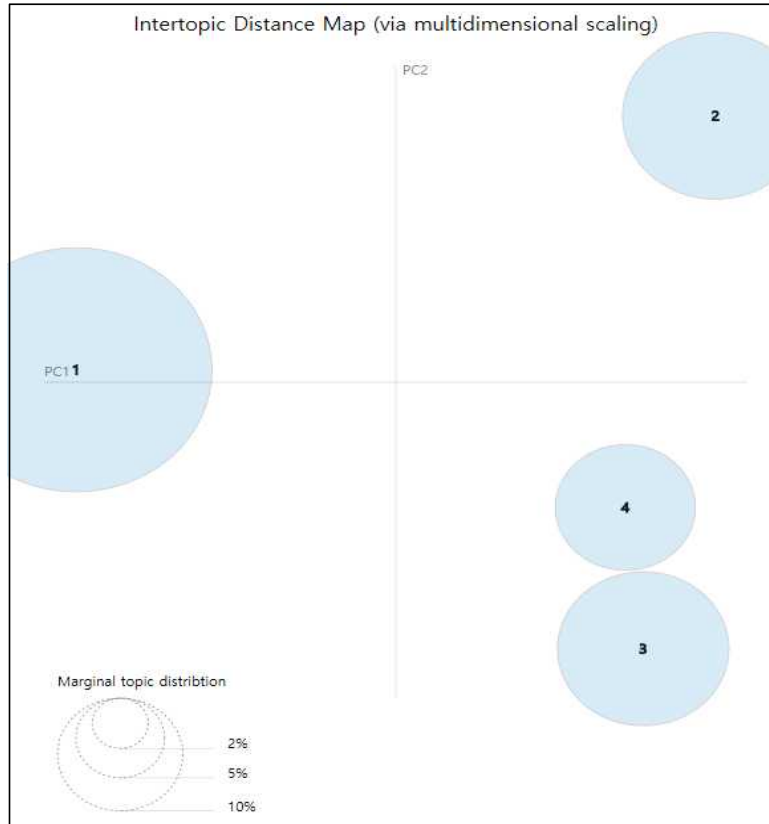


그림 2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토픽 간 거리 지도

<표 18> 네거티브 규제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의 토픽별 주요 키워드

토픽1		토픽2		토픽3		토픽4	
여성	0.050445	페미	0.044012	여자	0.064874	출산	0.054974
사회	0.029553	세상	0.035546	남자	0.05807	남편	0.038705
문제	0.026527	엄마	0.02526	사람	0.031113	휴가	0.028812
남성	0.025372	필요	0.018576	육아	0.027573	정책	0.019363
직장	0.025279	세금	0.015527	결혼	0.025851	한남	0.016847
영화	0.021563	가슴	0.011682	나라	0.024261	월급	0.0121
남녀	0.019904	자체	0.011135	육아휴직	0.017832	경제	0.012023
한국	0.017391	아빠	0.010126	생각	0.01779	대부분	0.010696
능력	0.015395	페미니즘	0.009978	회사	0.017787	수준	0.010454
평등	0.01489	그걸	0.009089	아이	0.015276	혜택	0.010108

- 이를 통해서 4개의 주요 토픽이 구성되었고, 그 토픽의 성격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음
- 토픽 1: 여성 남성 사회 문제 남편 평등
  - 토픽 2: 페미 세상 세금 필요 페미니즘

- 토픽 3: 여자 남자 육아 결혼 회사 생각
- 토픽 4: 남편 월급 수준 대부분 혜택

- 다음 포털과 달리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음
- 세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관련한 논의도 있었으며, 배우자의 소득 수준이 토픽으로 드러났음

9) 주요 댓글 내용(네이버)

- 관련 댓글 중에서 비교적 공감수가 높았던 댓글들과 특이 댓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9>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관련 네이버 포털 뉴스 주요 댓글

	댓글 내용	공감수
공감 상위 5개 댓글	우리나라는 아직도 애를 보면 무능력으로 취급하는게 문제다..어쨌든 누군가는 돌봐야하지않나? 그리고 사람 하나를 장 성장 시키고 키우는데 헛은일인가? 왜 커피한잔을 마셔도 욱먹는거지~그전에 싱글때 내가 돈 벌어서 생활할때 커피도 사먹고 밥도 사먹고 다했다..왜 애 키우면 커피한잔을 마셔도 맘충소리 듣는지 모르겠다..애 보는거 힘들다..이게 뭐가 팔자가 좋냐? 당연히 해야하니까 그냥 하는거다..	1091
	나도 여자들처럼 취직안되면 장가나 가지 뭐~ 하고 싶다.	1029
	남자고 여자고 싸울 필요 뭐있음? 여자는 애 낳고 어린이집 갈수있는 2년정도는 일 못하는게 사실이고. 몸 조리하라 육아하라 몸 힘든거 사실이고 남자는 적어도 그 기간동안 홀벌이로 부양의 의무가있는게 사실이고. 난 남자고. 7살 3살 애 둘에 와이프 경단녀 됐다가 둘째 어린이집 보낼수있을때돼서 아내 학원 등록해서 자격증따고 스펙보강해서 재취업했고. 맞벌이부부가 되서 애들 잘 키우고있음. 못난사람들끼리나 싸우지 막상 결혼해보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가는게 결혼 생활임	988
	공무원을 위한 공산국가다. 우리회사는 이렇게 못해... 너희들 우리가 내는 세금내고 마구 잔치를 벌이는데 너희들 공무원수 줄이고 연금 줄여야 한다.	935
	출산 및 육아 휴가 혜택이 많아져서 참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그 쉬는 만큼 대신 할 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전혀 생각지 않고 휴가 일수만 늘어나니 실제로 그 혜택을 주기 위해 고생 하는 건 동료 직원이고 회사는 손해 보는 것 없이 혜택 많다고 생색 만 내는 꼴이 되는군요	892

법과 규제 관련 댓글	공무원...공기업 제외하면 얼마나 혜택눌릴까?? 안지켜도 그만인 법말고 강제로 의무적 실시하는 법을 만들던지.....공무원 복지 자랑 하려는데 아니고....	93
	빨리 임신 전기간 .....단축근무 법안통과되면좋겠습니다 제발요	54
	솔직히 요즘 외벌이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집이 몇이나 될까요.. π 맞벌이 하고싶은데.. 조부모에게 기댈 수 없는 상황이면 기관보내도 법정전염병[수족구]이라도 걸리면 1,2주는 쉬어야하는데.. 1,2주씩 아무때나 휴가 낼수 있게해주는 회사가 몇이나 될까요.. 댓글보니 여혐 넘쳐나는데, 이걸 남녀프레임의 문제가 아니라 맞벌이 부부가 현실적으로 육아 자체가 어렵다는걸 보여주는 통계이고 뉴스예요.. π 남녀육하면 계속 제자리걸음..도돌이표가 될 뿐이에요	35
	법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하는 업체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규가 따로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위반시 가해지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해주시기바랍니다 ππ	26
	공무원만 임신허나 시범이라도 전기업전부 시행하라 좆소기업이라도 나하나빠진다고 안돌아갈것같냐 다 돌아간다 잔여직원 불평불만이늘뿐이지	21

- 공감 상위 댓글이 전반적으로 남녀 갈등이 크며, 법 개정으로 돌아가는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드러남
-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와 대체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큰 공감을 얻음